

# ISO/IEC JTC 1/SC 40 회의



김희선 DB Inc. 신기술연구소 차장

## 1. 머리말

ISO/IEC JTC 1은 산하 21개의 분과위원회를 거느린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를 총괄하는 기술위원회이다. 이 중 SC 40 기술분과는 IT 서비스관리 및 IT 거버넌스 국제표준화를 위해 2014년에 신설되었다.

2018년 6월 4일부터 8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SC 40 회의에는 총 17개국과 1개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국립전파연구원, 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화여자대학교, 삼성서울병원, DB Inc.에서 6명이 국가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이번 SC 40 총회에서 IT거버넌스 기술표준화 작업반(WG 1) 의장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김경민 교수가 선임되었다. 또한 IT인프라서비스관리 기술표준화 작업반(WG 4)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서비스 역량평가 성숙도 모델’ 작업에 DB Inc. 김희선 차장이 공동 에디터십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 결과 정보활용 서비스에 대한 신규 표준화 추진’과 ‘4차 산업혁명의 IT서비스 참조 모델 신규 표준화 추진’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 2. 주요 회의 내용

### 2.1 IT거버넌스 기술표준화 작업반(WG 1) 국제의장 선임

IT거버넌스 기술표준화 작업반은 IT와 관련된 여러 조직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법, 지침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중요한 아이টে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T거버넌스 기술표준화 작업반의 의장 사퇴로 새로운 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였다.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각각 국가 후보를 내세웠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총회 직전에 후보 철회를 선언하였고 한국과 멕시코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 참여국가의 거수투표가 있었다.

김경민 교수는 직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IT 거버넌스’를 주제로 IT거버넌스 기술표준화 작업반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후보 연설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았다. 의장 선임투표에서도 기존 의장 국가인 영국 국가대표와 비즈니스프로세스아웃소싱 기술표준화 작업반(WG 3) 의장인 일본 국가대표의 적극적인 지지 발언과 함께 프랑스, 오스

트레일리아, 인도 등 여러 참여국가가 지지선언을 했다. 최종 거수투표 결과 스페인을 제외한 16개 국가가 한국 후보를 지지하였다.

의장 선임 인터뷰와 지지 선언을 통해 'IT거버넌스 수준 진단'과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시사점' 등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표준화 작업을 위해 회원국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조율해가는 역할을 의장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IT거버넌스 기술 표준화 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프로젝트로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2.2 IT서비스관리 기술표준화 작업반(WG 2) 논의 내용

IT서비스관리 기술표준화 작업반은 ISO/IEC20000 인증 제도를 통해 민간과 공공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SC 40 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국 참여와 표준 문서를 개발하는 작업반이다. 특히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프랑스, 일본, 인도 등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IEC20000-2, ISO/IEC20000-3, ISO/IEC20000-10 표준 문서에 대한 각 국가의 검토의견을 논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ISO/IEC20000의 가이드 북 출판과 관련하여 참가국에게 홍보 활동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해 새로 제작된 웹사이트의 마스터를 지정하는 논의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영국의 린다 쿠퍼는 ISO/IEC20000-1:2018 문서가 27001:2013과 90001:2015에 통합 및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나, 일부 참여국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있어 추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애자일과 데브옵스와 같은 방법론이 ISO/IEC20000 국제표준문서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한 작업들이 향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2.3 4차 산업혁명과 의료 분야의 신규 표준화 추진안 발표

우리나라는 이번 SC 40 총회에서 2건의 기고서를 발표했다. IT거버넌스 기술표준화 작업반에서 서울 삼성병원 교수 연구팀이 '건강검진 결과 정보활용 서비스에 대한 신규 표준화 추진'을 제안하였고, IT 인프라 서비스관리 기술표준화 작업반에서는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IT서비스 참조 모델 신규 표준화 추진'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건강검진 결과 정보활용 서비스에 대한 신규표준화 추진'에 대해서는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유사한 주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 제안이 신규 프로젝트로 추진될 경우 공동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IT서비스 참조 모델 신규 표준화 추진' 제안에 대해 중국의 지지가 있었으며 프랑스 또한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 2.4 IT인프라서비스관리 기술표준화 작업반 프로젝트 한국 공동 에디터 참여

IT인프라서비스관리 기술표준화 작업반은 IT서비스관리 기술표준화 작업반에서 '인프라'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구하는 작업반이다. 아직까지 참여국가의 관심이 낮아 이번 회의에서도 의장 국가인 중국, 프랑스, 한국만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서비스 역량평가 성숙도 모델' 기술보고서 초안의 해결책 검토를 위해 참여국의 동의를 필요했던 중국대표가 한국 측에 협조 요청을 하여 기술보고 초안 검토회의에 DB Inc. 김희선 차장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송태승 센터장이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술보고서 초안 검토 의견으로 성숙도 모델의 측정 관점과 분류 기준에 대한 근거 부족을 지적하였고, 중국 에디터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업 하겠다는 결정과 함께 한국과 협력했으면 한다는 요청을 해왔다.

우리나라가 공동 에디터로 참여하게 된 ISO/IEC PDTR 22564-2 '데이터센터 서비스 역량평가 성숙도 모델' 표준화 문서는 중국상인은행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및 IT 서비스에 대한 역량평가를 위한 계량화 측정방법 및 서비스 개선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성숙도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함에 필요한 업무와 절차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정성적인 평가내역을 수준등급으로 정량화하여 점수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서비스 역량평가를 위해 전략, 관리, 거버넌스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세부 업무분야별 비중을 설정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작업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국 에디터가 문서 수정을 완료하면 8월 중에 온라인 미팅을 통해 검토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3. 맺음말

이번 SC 40 총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IT 거버넌스 기술표준화 작업반 의장에 김경민 교수가 선임된 것이다. IT거버넌스 기술표준화 작업반은 SC 40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룹이고, 향후 모든 IT 기술이 거버넌스와 연계되어 이 작업반에서 국제표준문서로 제시될 것이고,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언급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는 시작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게 된 IT거버넌스 기술표준

화 작업반의 활성화와 주도적 입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일본 등 참여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검진 결과 정보활용 서비스에 대한 신규 표준화 추진' 기고서가 후속 작업을 통해 차기 회의에서 다음 단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차기 SC 40 총회는 2019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중간(Interim) 회의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